

58회 학위수여식 오늘 거행... “세계 누비는 제대인 되길”

박사 39명·석사 90명·학사 1662명 등 총1791명 학위 받아... 오전 10시 아라뮤즈홀



김푸름 영어영문학과 송윤경 언론홍보학과 정석원 관광경영학과 김예진 수학교육과 박형주 식물자원환경전공 김혜지 지구해양학과 정진선 물리학과 이현수 건축공학전공



양학용 초등국어교육전공 배범주 수의학과 오유경 간호학과 홍지영 한국화전공 고경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연 의학전문대학원 손광운 체육과학전공

제58회 학위수여식이 20일 오전 10시부터 아라뮤즈홀에서 거행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같은날 20일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앞선 지난 1월 21일 제주대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 1662명, 석사 90명, 박사 39명 등 총 179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총장상 및 표창, 학장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관련기사 4·5면**

▲총장상(사진) △인문대학 김푸름(영어영문학과) △사회과학대학 송윤경(언론홍보학과) △경상대학 정석원(관광경영학과) △사범대학 김예진(수학교육과) △생명자원과학대학 박형주(식물자원환경전공) △해양과학대학 김혜지(지구해양학과)

과) △자연과학대학 정진선(물리학과) △공과대학 이현수(건축공학전공) △교육대학 양학용(초등국어교육전공) △수의과대학 배범주(수의학과) △간호대학 오유경(간호학과) △예술디자인대학 홍지영(한국화전공) △법학전문대학원 고경준(법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이주연(의학과) △학생군사교육단 손광운(체육과학전공) 총 15명

▲총장표창 △해양과학대학 유병선(토목공학과) △사범대학 홍성훈(영어교육과) △경상대학 양승훈(경제학과) △자연과학대학 박지혜(레저스포츠전공) △자연과학대학 정영훈(아동, 생활복지전공) 총 5명

▲학장상 △인문대학 오연실(국어국문학과) △김현호(영어영문학과), 강귀남(독일학과), 정희연(일어일문학과), 오지현(중어중

문학과), 진영민(사학과), 유준영(사회학과), 엄한나(철학과) △사회과학대학 김지환(법학전공), 이가현(행정학과), 강수진(정치외교학과), 김해리(언론홍보학과) 오지현(행정학과·야) △경상대학 고영민(경영학과), 김보라(관광경영학과), 이정민(회계학과), 김미진(무역학과), 고영민(경제학과), 변유경(관광개발학과), 여상은(경영정보학과), 이은주(경영학과야) △사범대학 양라운(국어교육과), 김수진(영어교육과), 김혜림(일반사회교육전공), 김규원(지리교육전공), 현나래(윤리교육과), 김주희(수학교육과), 강진광(물리교육전공), 김지예(생물교육전공), 김효상(컴퓨터교육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오민창(식물자원환경전공), 변재성(원예환경전공), 조상현(응용생

명공학전공), 홍민지(분자생명공학전공), 이민정(동물생명공학전공), 김충현(산업응용경제학과) △해양과학대학 김민기(해양생명과학전공), 조영관(수산생명의학전공), 고은(해양산업경찰학과), 강아세미(지구해양학과), 김충환(환경공학과), 한우법(토목공학과), 강승철(해양시스템공학과) △자연과학대학 현나희(물리학과), 송하나(생물학과), 김희수(화학과), 김하경(식품영양학과), 심예설(수학과), 이병준(전산통계학과), 현대자(주거가족복지전공), 강주영(의류학과), 김잔디(레저스포츠전공) △공과대학 이현수(식품생명공학), 김보연(기계공학전공), 현영빈(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김병근(통신공학과), 윤성신(에너지공학과), 홍영기(컴퓨터공학과), 양은비(전자공학과), 김민수(전기공학과), 현대술(생명화학공학과), 신승은(건축공학전공), 송현진(건축학전공) △교육대학 최충인(초등윤리교육전공), 박은아(초등국어교육전공), 한이슬(초등수학교육전공), 모주현(초등사회교육전공), 고행문(초등과학교육전공), 고진실(초등체육교육전공), 김민경(초등음악교육전공), 이효연(초등미술교육전공), 고유라(초등실과교육전공), 이정화(초등교육학전공), 김유하(초등영어교육전공), 윤환수(초등컴퓨터교육전공) △수의과대학 장소영(수의학과) △간호대학 김은이(간호학과) △예술학부 강선영(관현악전공), 홍한별(서양화전공), 오지애(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손정아(문화조형디자인전공) △법학전문대학원 강대웅(법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손종호(의학과) 등 총 83명 **부찬우 기자**

제9대 총장에 허향진 교수 임명

19일 대통령 임명제청안 재가

제9대 제주대학교 총장에 허향진 전임총장이 2월 19일자로 임명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허향진 1순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의결하고,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임명했다. 허향진 총장은 8대에 이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으며, 임기는 19일부터 2018년 2월 18일까지 4년 간이다.

허향진 총장은 20일 오전 학위수여식 행사부터 첫 공식업무에 돌입한다. 취임식 행사는 다음달 7일 예정돼 있다.

허향진 총장은 지난해 11월 13일 처음 실시된 공모형 간접선거에서 1순위 후보



자로 선출됐으나 교육부의 총장임용 절차가 다소 늦어지면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총장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었다.

한편 허 총장은 1977년 제주대 관광학과를 졸업한 뒤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세종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제주대 경상대학 학장, 경영대학원 원장,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0년 2월 17일부터 제8대 제주대 총장으로 취임,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국가고시서 졸업생들 ‘두각’

간호대·의전원 등 전원합격... 교육대·수의대·사범대는 상위권

제주대 학생들이 각종 국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교육대학(학장 김익상)은 전국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전국 1위를 거뒀다. 지난해 29일 최종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교육대학 졸업생 122명은 이번 시험에 응시해 116명(95.08%)이 합격했다. 지난해 합격자 수 93명(78.2%)과 비교해도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전국 11개 교육대학 합격률을 보면, 제주대에 이어 전주교대(93.95), 청주교대(89.09%), 공주교대(89.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주섭 교육대학 교학처장은 “대학의 임용특강이나 다양한 실기수업 등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지원 속에 학생들의 열정과 교수진의 헌신적인 지도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전공별로는 △초등영어교육전공 14명 △초등교육전공 미술 13명 △초등교육전공 수학 11명 △초등 국어·윤리·컴퓨터·음악·사회교육전공 각 10명 △초등교육학전공 9명 △초등과학교육전공 6명 △초등체육교육전공 5명 등이다.

또 간호대학(학장 이은주) 졸업생 56명은 지난해 24일 최종 발표된 2014년도 제54회 간호사국가고시에서 전원 합격했다. 간호대학은 2년 연속 합격률 100%를 달성했다. 간호대학은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간호사 국가고시 100

%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94%의 합격률을 보였다.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38명은 지난해 23일 최종 발표된 2014년도 제78회 의사 국가고시에서 모두 합격하는 기쁨을 맛봤다. 의사국가고시는 전국 평균 93.8%로 합격률을 보였다. 그 동안 의전원은 매년 전국 평균 합격률을 웃돌았지만 100% 합격률은 지난 2006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홍성철 원장은 “그 동안의 학생과 교수들의 노력과 대학의 임상실기 준비 및 시술 등 많은 지원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수의과대학 졸업들도 지난해 29일 최종 발표된 2014년도 제58회 수의사국가고시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 졸업생 45명이 응시해 42명 합격해 93.3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또한 사범대학은 2014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총5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난해 합격자 53명과 비교해 올해 합격자가 3명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공별로는 △국어교육과 8명 △영어교육과 5명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5명 △지리 1명 △윤리 4명 △수학 20명 △물리 5명 △생물 3명 △컴퓨터 2명 △교육대학원 3명(음악·미술·영어 각 1명) 등이 합격했다. **부찬우 기자**

입학식 25일 아라뮤즈홀... 축하공연도 마련

오리엔테이션은 24·25일

17-20일 예비대학 열려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오는 25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개강일 수업보장을 통한 면학 분위기 조성과 신입생들의 빠른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2월에 열리는 입학식이다.

입학식은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번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전 10시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해양과학대학 신입생 입학식이 시작된다. 오후 2시부터는 생명자원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

과대학, 교육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입학식이 진행된다.

행사 시작 전 20분간 대학홍보 동영상 상영한다. 또한 신입생에게 입학기념품을 전달한다. 입학식 축하공연으로 필무직보컬 앙상블 중창과 난타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다음과 같다. ▲24일=경상대학(09:00~) 경상대학 2호관 강당

▲25일=△간호대학(09:30~) 간호대학 1층 강의실3 △공과대학(09:30~) 공대 3호관 대강당 △교육대학(09:30~) 사라캠퍼스 미

래창조관 △수의과대학(09:30~) 제주감골 화훼센터 대강당 △생명자원과학대학(09:30~) 생명대 2호관 3층 세미나실 △예술디자인대학(09:30~) 인문대학 1호관 세미나실 △자연과학대학(09:30~) 자연대 1호관 세미나실 △사회과학대학(11:00~) 사회과학대학 중강당 △인문대학(11:00~) 인문대학 2호관 세미나실 △해양과학대학(12:00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함덕 대명리조트에서 새내기 예비대학이 열렸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를 알기’, ‘꿈찾기’와 선배들과 미니멘토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자연대학(09:30~) 인문대학 1호관 세미나실 △자연과학대학(09:30~) 자연대 1호관 세미나실 △사회과학대학(11:00~) 사회과학대학 중강당 △인문대학(11:00~) 인문대학 2호관 세미나실 △해양과학대학(12:00

~) 해대 4호관 오션홀 △사범대학(13:20~) 사범대학 2호관 3327세미나실.

한편 기초교육원이 주관한 예비대학 ‘더 높이! 더 멀리!’ 프로그램이 17일부터 20일까지 대명리조트와 캠퍼스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 “개방형 ICT 융합과정” 관광융합소프트웨어 복수전공 과정 안내



신청대상

- 제주대학교 모든 학과(2014년도 기준 2, 3학년)
- 신청 학생 중 선발절차에 따라 선정된 학생

복수전공 로드맵

본 전공영역 42~57학점 + 관광융합S/W 42학점 + 교양과목 기타교과목

130학점

본인전공 학사학위 + 관광융합소프트웨어 전공 학사학위 취득
취업연계(C&D Project, 인턴십)

문의 제주대 OIC사업단
대표전화 064)754-8351
oic.jejunu.ac.kr

복수전공과정 특징

- 본 전공 + 관광소프트웨어 전공 복수학위 취득
- 복수전공과정 우수자에 대한 학사 지원비 지급(기존 장학금 수혜 가능)
- 복수전공과정 이수자에 대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전문기특강, 취업세미나, 1:1 멘토링 지원)
- 산업체 연계 C&D 프로젝트 수행
- 자격 취득자에 대한 비용 지원
- 각종 경진대회 참가비용 지원

졸업후 진로

다학제간 융합, 대학-기업간 융합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단순 한정된 인재보다는 미래 S/W 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진로를 다양화 할 수 있음.

- 1 지역 S/W 업체 및 관광 관련 분야 취업 가능
- 2 국내 및 외국기업의 S/W 관련 분야 취업
- 3 국내 및 외국에서 S/W 관련기업 창업 및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제주대학교 개방형ICT융합(OIC) 관광융합S/W 복수전공 과정 설명회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4 관광융합소프트웨어 복수전공 설명회
- 장 소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2호관 경영대학원 공개강좌 강의실
- 참석대상 : 제주대학교 전학과 현재 1, 2학년생
- 일 시 : 2014. 3. 3(월) 15:00
- 주 최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주 관 : 제주대학교 OIC사업단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4:40 ~ 15:00	20'	참가학생 등록 및 자료배부/ Welcome Drink
15:00 ~ 15:10	10'	설명회 오픈 및 참석자 소개
15:10 ~ 15:30	20'	설명회
15:30 ~ 15:40	10'	질의 응답
15:40 ~ 16:00	20'	폐 회 복수전공신청서 접수 및 희망학생 심층면담

사설

졸업생들이여, 평생 공부하라

졸업이 다가오는 2월은 졸업생들에게 두려움일까. 대학 졸업은 학문의 대입을 마친다는 의미이고, 이제 졸업생은 새로운 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 업(業)이 취업인가. 당연히 아니다. 이제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어 세상을 살기 위한 학업을 마치고 홀로 서기의 본업으로 진입하는 것이 졸업의 진정한 의미다.

본업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일이 본업이 된다. 예전 사람들은 이를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했다. 글 읽는 선비로 살다 벼슬을 하기도 하고 평생 학문 탐구에 전념하는 일을 값지다고 여겼지만, 농사를 천하의 근본으로 여겼다. 밥 먹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니, 밥 먹는 이치를 알면 세상 이치를 통달하는 것이다. 밥그릇 하나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옛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다시 경청해야 옳다. 아울러 장인이 되어 생필품을 만들거나 상품을 사고파는 장사꾼이 되는 것도 인간의 본업이다. 세월이 바뀌어 공상(工商)을 지나치게 우대하고 그것이 경제의 중심이라 여기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이 중요하고, 그 일들은 밥으로 통한다. 돈이 중심이란 천박한 마음을 버리면 세상 모든 일이 값지다.

예전처럼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장인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 훌륭한 장인이라도 스스로 판매망을 구축하여 장사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 농사를

지어 얻은 자신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인터넷망을 스스로 구축하면 훌륭한 농부가 된다. 농공(農工), 농상(農商), 공상(工商)을 겸하면 새로운 돌파구가 생긴다. 취업만이 먹고 살 길이 아니라, 창업을 하는 것이 귀중하고,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도 좋다. 농공상을 재결합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졸업생들이여, 쫓지 말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라. 취업에 목숨 걸지 말고 당당하게 창업하라.

부모님이 가라는 길을 가면 망한다. 자신이 가장 잘 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보람 있는 것을 하면 된다. 공무원을 철밥통 직장이라 여기고 구하지 마라. 공인(公人)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할 사람만 가는 곳이다. 취업도 좋지만, 결국 남의 머슴이 되는 길이니 기왕이면 스스로 사장 되는 길을 구하라. 농부도 사장이고 장인도 사장이니 세상이 왔다. 농사지으면서도 장인정신으로 최고의 농산물을 만들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여 팔면 좋은 창업이다. 그런데 장인정신과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부야 필요하다. 그러니 평생 공부해야 한다. 사농공상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에서 사농공상을 실천해야 진정한 이 시대의 본업을 얻는 셈이다. 늘 공부하면서 땀 흘려 일하고,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장인정신으로 만들어 자신의 소비자에게 파는 것도 위대한 창업이고, 그것이 본업을 찾는 길이다. 졸업생들이여, 평생 공부하라.

‘영어강의 확대방안’ 재검토 필요

지난 2월 11일 우리대학교 연찬회가 열렸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전과 방향’ 발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대응방안’ 설명 등에 이어 부서별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정부의 대학교조개혁 요구에 따른 우리대학교의 발전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제시됐다. 변화의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로 고심한 흔적들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우려되는 계획도 있어서 여기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은 ‘영어강의 비중 확대’와 관련된 계획이다.

관련 부서에서는 학부 전공강좌 중 영어강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며, 이런 상황이 학생들의 취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연찬회 자료집에 제시된 추진 계획의 골자는 크게 네 가지이다. ① 영어강좌 지원비는 현행대로 지급한다는 것, ② 2014학년도 1학기 전입교원 공개 시부터 영어강의 가능자로 채용한다는 것, ③ 강의시수 인정범위는 2015학년도부터 시수의 1.5배로 확대한다는 것, ④ 2017학년도부터는 학과 또는 전공별 1개 강좌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관련 부서에서 영어강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더구나 대학평가에서 영어강의 비율이 높아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점도 모르지 않는다.

그러기에 영어강좌 지원비를 지급하거나 강의시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는 데에는 얼마든지 찬성한다. 오히려 지원비의 경우는 더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영어강좌를 의무화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4학년도 1학기 이후에 채용되는 교수들에게는 1개 강좌 이상의 영어강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는 것이 관련 부서의 방침이다. 물론 ‘특수 분야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놓긴 했지만, 신입교수들에게 영어강의를 확실히 강요하겠다는 발상이다. 신입교수의 입장으로서의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거부하기 어려우리라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들이대는 교악한 강요인 셈이다. 3년 후부터 학과 또는 전공별로 1개 강좌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필요한 학과에서 자발적으로 개설토록 하면 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강제할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대학평가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욕심으로 대학교육의 기본을 흔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 본말을 전도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대학교육 파행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영어강의 비중 확대 방안을 당장 폐기하기를 촉구한다.

흑돼지 소재 애니메이션 ‘응까소나타’ 4월 방영

제주대 창업지원단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으로 탄생

제주대 창업지원단(단장 조경호)이 제작지원한 애니메이션 ‘응까 소나타’가 오는 4월 MBC에서 방송된다.

‘응까 소나타’를 제작한 (주)그리메(대표 신주영)가 11일 MBC와 협약 체결했다.

애니메이션은 주인공 흑돼지 ‘응까’가 제주 감귤 1만개를 먹으면 황금 동을 쓰는 독특한 소재를 담았다. 그리고 이 황금을 노리는 해적 ‘크렘선장’과 응가를 잡아 미인이 되려는 마녀 ‘스파게티’를 내용으로 한 30분 짜리 26부작 어린이 애니메이션이다.

제주대는 전국 18개의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창업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공간·인력·장비 등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자와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기획, 시제품 제작, 멘토링, 마케팅 등 창업 준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지원단 김상현씨는 “이번 ‘응까 소나타’가 제주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과 예비창업자들의 좋은 모범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지원을 통해 생존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더욱 많이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신주영 대표는 스토리텔링센터와 시나리오 공동 작업을 하면서 우리 대학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또 산학협력단의 권유로 제주대 창업사업화지원에 지원했다.

그는 “제주도 풍경을 처음 봤을 때 이국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제주도만의 특색이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됐다”고 ‘응까 소나타’의 탄생 비화를 전했다.

이어 신 대표는 “처음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는 예산과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지원단이 도움이 됐다”며 “지원비뿐만 아니라 사업의 관리와 운영 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응까소나타’는 2013년 제주테크노파크에서 IT/CT신기술 사업 일부 지원과 제주관광공사의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이같은 성과를 거둬 그 의미가 크다고 창업지원단은 설명했다. 부찬우 기자



오는 4월 MBC를 통해 방영될 예정인 애니메이션 ‘응까소나타’ 포스터.

포스트칼리지 과정 확대 운영

‘성공적인 직장생활’… 예비취업자 위한 내용 담아

예비취업자들을 위한 포스트칼리지(Post-College) 과정이 운영된다.

포스트칼리지 과정은 예비취업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직장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한 강의학습 콘텐츠이다. 제공되는 교과목은 ‘성공적인 직장생활’ (3학점)이다.

‘성공적인 직장생활’은 30개 소주제로 구성돼 있다. 이 과정에는 업무태도, 스트레스 관리, 인맥관리, 보고서작성, 프레젠테이션기술, 시간관리, 리더십 훈련, 위기관리 등 직장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계절학기부터 운영되고 있는 포스트칼리지는 학생들의 취업 후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조기 취업 등으로 전공강좌 출석 수업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러한 학습을 통해 졸업학점 이수 기회를 부여한다.

대학 이력센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필요하고 모든 대학이 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다”며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취업활성화 고용포럼 열어

제주출신 경영자, 미취업 졸업자 참석

제주대는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취업활성화를 위한 고용포럼’ 행사를 열었다.

이 포럼에는 서울·경기지역 제주출신 CEO 50여명, 제주대 미취업 졸업예정자 및 포럼 참가기업 인턴생 50여명, 허한진 총장을 비롯한 제주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CEO는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김기범 텔리센트로 사장, 김성훈 퍼플마린 사장, 오천금 건풍바이오 대표 등이다.

한편 행사에선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 참가한 CEO들과 학생간의 대화 및 토론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생리활성물질 규명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서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센터장 박세필)는 ㈜미래생명공학연구소(소장 김은영), 신여성병원(원장 정창진)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인간 지방줄기세포 유래 생리활성물질 처리를 받은 돼지 수정란의 발생율과 분자생물학적 특성 규명’에 성공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알츠하이머질환 모델 돼지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난치병 치료 극대화, 고부가가치 산업인 줄기세포화장품 및 제약산업 발전, 불임환자 임신율 증대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팀은 인간 지방줄기세포 유래 생리활성물질(IL-6, VEGF, FGF)이 기존 배양액 첨가 에너지원인 소 혈청 알부민(BSA)이나 소 태아혈청(FBS)보다 1.5배 이상 높은 배반포율을 보여 양질의 수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음을 규명했다.

박세필 교수는 “인간 지방줄기세포 유래 생리활성물질 생산기술이 앞츠하이머질환 모델 돼지 생산성 향상향상과 동물장기이식 효율 증대를 통해 난치병 치료 극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발전기금으로 1억원 쾌척

고경찬 벤텍스 대표

“의류학과에 인재양성에 사용”

첨단섬유기업인 벤텍스(주)의 고경찬 대표는 지난 13일 1억원의 발전기금을 제주대에 전달했다.

고 대표는 2012년부터 섬유산업연합회 장학재단 내 ‘벤텍스 장학회’를 운영하며 섬유공학 전공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멘토링 활동을 해왔다.

고 대표는 고산중과 제주일고를 나온 제주출신 재경계인. 1999년 회사설립 이후 ‘1초만에 마르는 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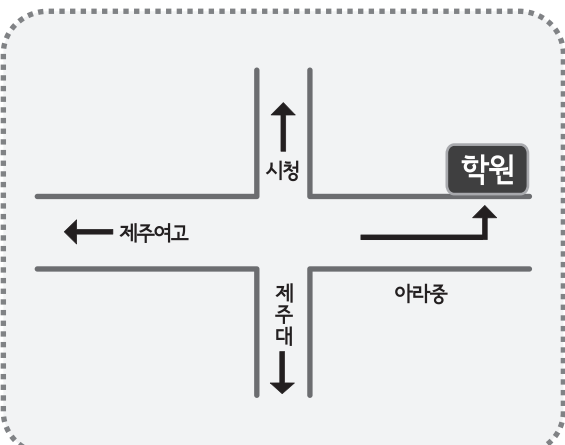
인 ‘드라이존’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고 체일만사섬유 ‘메가히트’, 태양광발전 섬유 ‘히터텍스’ 등을 통한 지구환경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 지능성 섬유 개발을 위해 끊임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창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2014 제 1학기 정규강좌 (3학점)

이노베이션 특강

매주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주요 대학 교수진 및 각 분야 대표와 혁신 전문가를 초청하여 블루오션을 열어가는 혁신에 관한 생동감 있는 현장 수업을 진행합니다.

신청대상	학 점	수강반 번호	강 의	강의평가
모든 학생	3학점	927203	매주 금 6,7,8교시	Pass or Fail

강사진

손욱 (前 농심회장, 삼성종합기술연구원 원장, 혁신전문가)
프레다 국제전문직여성연맹 (BPW) 세계회장
홍성욱 서울대 생명공학과의 교수
윤대승 참좋은 여행 CEO
안중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임안순 회장 (제주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고제광 여행기획가 (前 제주생태관광대표)
제주도 혁신기업 특강 : 제주관광공사/넥스/다음
스마트 IT 전문가
발명특허 전문가 등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형 정보통신융합과정 (ICT) 선도대학
제주대 OIC 사업단에서 제주대학생 여러분을 강좌에 초대합니다.

제주대 OIC 사업단
(oic.jeju.ac.kr)

2014학년도 제1학기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수강생 모집안내

1. 수강신청 원서 접수 및 등록기간

2014. 2. 3 (월) ~ 2. 28 (금)

가. 인터넷 접수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psg.jeju.ac.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

나. 방문접수(토, 일요일 제외)

- 시간 : 09:00 ~ 18:00

- 장소 : 평생교육원 행정실

다. 전화접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수강희망 강좌 등을 접수

2. 교육기간

2014. 3. 3 (월) ~ 6. 30 (월) 15주

3. 학습비 납부 방법

▶ 가상계좌에 의한 수강료 납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 1일 후 가상계좌번호 부여 →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수강료 납부 (예금주 : 수강생 본인)

▶ 납부방식 :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대학 승인코드 954871) 이용 납부

4. 선발 방법

원서접수 후 등록(학습비 입금) 순으로 선발함

5. 교육과정 등 참고사항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psg.jeju.ac.kr) 참조

6.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행정실☎(064)754-2704-5로 문의 바람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특성화’ 문제 집중 부각... “험난한 도전에 직면”

‘행복한 대학공동체 실현’ 위한 제주대 연찬회 11일 열려
‘취업률, 국립대 최상위권 달성’ 등 대학 발전목표 설정

‘함께하는 도전, 행복한 대학공동체 실현’을 주제로 한 2013학년도 연찬회가 지난 11일 국제교류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연찬회는 지난해 대학운영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고 현안과 미래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허항진 총장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취업률, 사업 등 각종 국책 사업에서 괄목한만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는 소임을 다한 교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총장은 지난해 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 및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설명하며 “올 한해에도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험난한 도전에 직면한다”면서 “서로 격려하며 힘차게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자”고 말했다.

특히 이날 대학구조개혁과 지방대

학 특성화사업에 관한 설명과 학내 구성원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학구조개혁은 대학 등급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해 2022년까지 전체 대학 정원 16만명을 줄이는 정책이다. 이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돼 모든 평가 등급에서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교육역량강화사업을 개편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대학의 비교 우위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다.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등 총 10개의 사업단만이 신청 가능하다.

행사는 고부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국 및 직할기관 등 단위기관별 업무계획 발표와 구성원들의 의견 및 건의, 질의 답변 등 토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5년 인증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6년 연속 선정 △BK



지난 11일 국제교류본부 대회의실에서 2013학년도 연찬회가 열렸다.

21플러스 사업 2개 사업단과 4개 사업팀 선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유치 △변호사 시험, 수의사·간호사 국가고시 등 90%가 넘는 합격률과 사범시험,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등 합격자 배출 △해외교육실습 전국 최초 실시 등이 있었다.

이날 4년간 대학 발 목표도 발표했다. 주요 발전 목표는 △학술진흥원 구비 단계별 증액 △7+1(한 학기 해외 수학) 프로그램 운영 △취업률 국립대 최상위권 달성(3위 이내) △학술연구비 및 국책사업 2000억원 시대 달성 △해외유학생 유치 확대 △대학 발전기금 1500억원대 조성 △세주점 단과학단지와 연계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교직원 처우 개선 발전기금 조성 △교육대학 아라캠퍼스로 이전 기반 조성 △아시아-태평양 섬 거점대학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강경태 기자

김보람팀, 아라토론대회 최우수상

우수상에 김재성씨팀, 장려상에 고두현씨팀·이동운씨팀

아라토론대회 시상식이 지난달 29일 열었다.

이번 아라토론대회에서 화수분(팀장 김보람 정치외교학과 3)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혜운(팀장 김재성 국어국문학과 4)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하오나전하(팀장 고두현 생활환경복지학부 3)과 해치지 않아요(팀장 이동운 회계학과 4)이 공동 수상했다.

최우수상 팀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총장상이 수여됐다. 우수상과 장려상 팀에게는 각각 기초교육원장상과 상금이 주어졌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아라토론대회는 지난 해 11월 예선전을 시작으로 총 8팀이 본선에 진출해 토론을 벌였다. 대회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해외자본을 통한 제주도 개발 등의 논제로 진행됐다.

기초교육원 관계자는 “예선부터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각 팀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며 “까다로운 논제를 선정했음에도 훌륭한 토론을 선보인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리포트 공모전에는

△최우수상(총장상)=김현호(영어영문학과 4) · 양지현(컴퓨터교육과 2) △우수상(기초교육원장상)=조윤희(행정학과 3) · 이정민(해양시스템학과 3) · 박운규(생명공학부 2) 정흥기(통신공학과 4) 등이 수상했다.

강수빈 기자

학부 등록금 0.43% 인하

지난 3일 대학본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기성회이사회를 열어 학부 수업료는 0.25%, 4학년에 한해 기성회비를 2.31% 인하하기로 했다. 교육대학과 대학원은 전년 대비 동결된다. 2012년 5.7%, 2013년 0.39% 인하는 등 3년 연속 인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생 1학기 등록금은 △인문 · 사회계열 164만원 △이학 · 체육계열 201만1000원 △공학 · 예능계열 218만5000원 △수의예과 214만9000원 △의학과와 수의학과 281만6000원 등이다. 재학생 등록금 납부는 2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4일간이다.

“자신의 희망을 믿는 순간 미래의 희망도 열린다”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식사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울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 정성껏 지도해주신 교수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천여명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히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스마트 혁명과 세계화로 대변되는 문명사적 전환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창리기반사회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술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학문의 융합은 물론 문화와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컨버전스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사회는 새로운 인재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의성과 혁신성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의 리더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갖고 닦은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잠재된 창의력을 일깨우고, 혁신적인 열정으로 새로운 인생 항로를 힘차게 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정든 교정을 떠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선 졸업생 여러분들께 우리 사회는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의 물결을 헤치고 당당히 도전해야 할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꿈과 비전을 세우고 창조적 도전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은 여러분의 미래를 이끍니다. 스마트사회를 이끌 창의력을 기르면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의 범주를 뛰어넘는 특별한 사람들인 ‘아웃라이어(Outlier)’의 성공요인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하루 세 시간씩 훈련·연습하는 자세로 10년간 열정적으로 노력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10년 후 성공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소프트 역량을 배양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협력하고 배려하며, 부딪히는 이해와 복잡한 갈등의 요소를 소통으로 풀아가는 용기와 통합적 마인드야말로 여러분들이 열어야 할 새로운 미래에 필요한 소프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소프트 역량이 바로 경쟁력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창의성과 자기혁신으로 미래변화를 읽고 앞장서 나아가는 인재가 되십시오. 언제나 학습하는 배움의 자세와 창의적으로 바라보는 혁신적인 정신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어 온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도전이 닥칠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도전을 반드시 기회와 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앞을 막아서더라도 자신이 꿈꿔온 가능성을 믿고 다시금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꿈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삶으로 실현하십시오. 제주대학교에서의 초심을 기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믿는 순간 미래의 희망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교는 언제나 문을 열고 여러분을 받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모교의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다 쉬고 싶고 재충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모교가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제주대학교는 모든 구성원들이 국내 20위권 내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교 61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대학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취업률에서 우리대학은 거점국립대 2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1차년도 평가에선 ‘호남·제주권 1등’과 ‘전국 2등’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선 6년 연속 선정되는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BK플러스 21사업’ 지원 대학에 선정돼 7년간 108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고, ‘그린캠퍼스대학 선정’, ‘수산백신연구센터 주관기관 선정’, ‘거점 창업선도대학 선정’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둬 작지만 강한 우리대학교의 역량과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대학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의 성원, 그리고 우리 대학교를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우리 제주대학교의 아름다운 전통과 명성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또 하나의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부디, 세계를 마음껏 누비면서 자신의 성공과 모교의 명예를 함께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재대인으로 살아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졸업생 여러분의 영광스런 학위 취득을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제주대학교 총장 허항진

사람들

안성수 교수 재암문화상 수상

안성수 국어교육과 교수가 재암문화상을 수상했다.

재암문화재단(이사장 송봉규)은 지난달 29일 제주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창립 12주년 기념식을 갖고 안 교수를 2014년도 재암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해 상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안 교수는 ‘수필과 비평’이 주관하는 제19회 신국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안 교수가 수상한 작품은 수필 평론집으로 제목은 ‘한국현대수필의 구조와 미학’이다.



고관표 교수팀

제주물로 당뇨병 치료 효과 규명

고관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은 임상연구를 통해 ‘제주물의 당뇨병 치료효과’를 밝혀냈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최근 국제저명학술지인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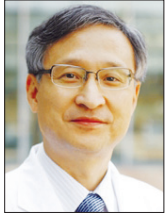
주승재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주승재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주 교수는 지역 보건 의료분야 발전과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았다.

주 교수는 지난 2009년 11월 문을 연 제주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아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심뇌혈관질환 관련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제주도민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이창준 교수

대한육상경기연맹 공로상 수상

체육학부 이창준 교수가 대한육상경기연맹 공로상을 수상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지난 21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2014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교수에게 한국육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이 상을 수여했다.



강경희 교수

제주여성특위 위원장 선출

강경희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제8기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출됐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특별위원회는 오는 2016년 1월31일까지 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과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 의결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정주희 교수

당선 작품 루마니아서 연주

정주희 음악학부 작곡전공 교수가 (사)한 국여성작곡가회 작품에 공모, 당선된 ‘오케스트라를 위한 오돌토기 변주곡’ (O dol to ki Variation for Orchestra)이 오는 26일 루마니아 티미소아라 나바를 필하모니홀에서 티미소아라 오케스트라(Filarmonica Timisoara Orchestra)에 의해 연주될 예정이다.

연주회는 한국여성작곡가회와 루마니아 작곡가협회의 교류 연주로 기획됐다.



김부찬 교수

『국제법 특강』출간

김부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국제법특강 -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보고사)를 출간했다.

이 책자는 김 교수가 대학 강단에 선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학회활동 및 저술활동을 통해 꾸준히 ‘국제적법치주의 및 글로벌 거버넌스’의 증진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해 온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2011년에는 그동안 발표한 영문 논문들을 하나의 단행본으로 엮어 낸 바 있다.



강사운 교수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선출

강사운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주참여환경연대의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한편 최현(사회학과 교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공로패를 받고 직을 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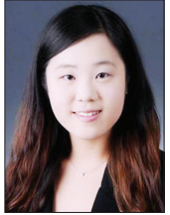


최영미 대학원생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최영미 초등과학교육전공 박사과정(지도교수 홍승호) 원생이 최근 대구대에서 열린 ‘2014 KASE International Conference 겸 제65차 한국과학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명은 ‘Effects of STEAM Lessons Using Scratch Programming regarding Small Organisms in Elementary Science’로, 최씨는 이 논문을 통해 생명과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융합한 초등과학 수업의 전략 및 효과를 제시했다.



김덕호 대학원생

우수 논문상 수상

김덕호 초등과학교육전공 박사과정(지도교수 홍승호)원생이 최근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린 ‘2014년도 제66차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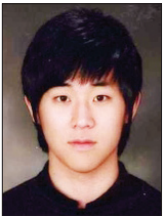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명은 ‘예비 초등교사들의 지층에 대한 인식조사(The Percetion of Preliminary Elementary Teachers Regarding Stratum)’다.

박창남(수의학과 4) 씨
수의사면허시험 전국 2위

박창남(수의학과 4) 씨가 지난 17일 실시된 제58회 수의사면허시험에서 전국 2위 기록했다. 또 같은 시험에서 박현성 씨(아래)가 15위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수의사면허시험에서 시험에는 611명이 응시했다. 제주대는 56명의 응시생 중 50명이 합격해 89.6%의 합격률을 보였다.



강규연(생명공학부 3) 씨
감귤껍질 활용한 맥주 개발

강규연(생명공학부 3) 씨가 고려대생 문성혁 씨와 함께 감귤껍질에서 추출한 베타크립토산틴 성분을 첨가해 ‘베타맥주’를 개발했다.



박사 학위

중어중문학
후림 박사 中國 知靑文學 研究
경영학
지성호 박사 경력학습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김미성 박사 브랜드 자기결정성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대중평품을 중심으로-
관광경영학
이유라 박사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에 관한 연구
경영정보학
디와더르지 남수릉 박사 Users’ intention on adoption of smartphone based healthcare serv-ice using an integrated model of HBM and TAM
농학
송진영 박사 한라산 고산식물의 생육환경 및 증식 연구
생명공학
한승헌 박사 한국산 어류의 DNA barcoding과 알·자치어 동정
누엔반쿠엔 박사 An Agrobacterium-mediated Transformation System of Spinach (Spinacia oleracea L.) for the Study on Phytoecdysteroid Biosyn-thesis
응용생명공학
니레시 사르마 박사 Establishment of Selection Method for Cure System Using the Stem Cells Under the Disease Environ-ment for Finding of Self-Cure Mechanism in Bovine mastitis
해양생명과학
강민철 박사 Anti-obesity effects of red algae on the differentiation of 3T3-L1 preadipocytes and obese mice fed a high-fat diet
고주영 박사 Effects of marine compounds on wound healing
장영한 박사 Identification, characterization, rapidetection technique develop-ment and vaccine production of major fish pathogen, Pseudomonasanguilliseptica isolat-ed from farmed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사마라쿤 박사 Bioactive Natural Products from Cultured Marine Microalgae and SriLankan Marine Algae
위크라마라치 위크라마라치게 돈니로사나 박사 Insights into Immunological Role of Teleost Complement System: Genomic Structural Identification and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Consecutive Nine Complement Com-ponents of Rock Bream (Oplegnathus fasciatus)

토목해양공학
김인석 박사 제주외항에서 폭풍 파랑하중에 의한 사질 토 지반에 시공된 방파제의 침하 연구
화학
송정민 박사 제주지역 양돈시설 발생 악취물질의 특성 및 저감효과 연구
이동은 박사 제주지역 강수성분 장기 모니터링 및 오염 특성 연구
전산통계학
오수민 박사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범주형 데이터 군집 분석을 위한 초기치 선정방법
가정학
강기은 박사 제주 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류학
황경태 박사 패션 스타일리스트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모형 개발
기계공학
김성만 박사 제주지역에서의 지중공기열을 이용한 지열 시스템 실험 연구
메카트로닉스공학
아드난알리 박사 Graphene Flakes and Graphene Composites: Synthesis, Processing and Employment for Printed Elec-tronics Devices
무스타파 마리아 박사 Fabrication and Employment of Or-ganic thin film for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슬리다란술다람 박사 Development of Flexible SWCNT based Supercapacitors through Electro Hydro Dynamic Atomization Technique
김준우 박사 인쇄전자용 나노박막코팅을 위한 하이브리드 스프레이 공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화학공학
박성식 박사 탄소나노튜브와 그래핀을 이용한 나노유체의 열전달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오승진 박사 Development of Smart Solar Track-ing for Solar Energy Concentration : Application in Daylighting and Con-version
고민석 박사 Electrical impedance sensors for volume fraction measurements of two-phase flows
현준호 박사 Development of a Silica Gel Adsorption Desalination System Utilizing Low Temperature Heat Sources
전자공학
김형찬 박사 정전기적-탄성표면파 기반의 나노박막 코팅 공정 연구

고정범 박사 정전기력 기반의 고성능 미세전극 패턴링 공정 연구	응용생명공학과 전덕현 카오 당 비엣 트란안타오
교육학	농업경제학과 박길석 해양생명과학 김태호 오재영 부 히엔 티 디우 어업학과 박현학 해양시스템공학과 강윤정 김창수 이혜빈 환경공학과 김명찬 이은석 한지안 토목해양공학과 고명진 화학학과 김성천 백승준 이윤상 한정환 식품영향학과 김미경 수학과 홍승표 오나영 가정관리학과 임성욱 김지은 양성혜 의류학과 가빙 체육학과 박부성 안병식 식품공학과 박경진 이현정 박경열 에너지화학공학전공 임혜지 유동 컴퓨터공학과 최형길 전기공학전공 김지형 김형진 풍력특성화협동과정 박재희 박미호 변지선 수의학과 문선영 정수교 간호학과 고현록 윤경미 홍미경 윤여옥 오윤희 이혜숙 미술학과 고윤정 강태환 고윤정 의학과 박승국 고성주 김소현 부 녹 타이 쉬레스타 에일린 유소연 이소영 차병호 의생명·신약개발학과 구동환 강나진 호만틴
이순미 박사 유아교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 계 변인	
전경애 박사 입학사정관제 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백혜선 박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실증연구	
컴퓨터교육학	
현동림 박사 스마트 교육 환경을 기반으로 한 현장체험 학습 지원시스템 개발	
김은길 박사 스마트 환경에서 맞춤형 학습 시스템 개발 및 효과 분석	
김병수 박사 계산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PPS기반 프로 그래밍 교육 프로그램	
의학	
김기천 박사 Cytoprotective effects of baicalein against oxidative stress-induced cell damage	
김보련 박사 Cardiovascular Fitness as a Predic-tor of Functional Recovery in Sub-acute Stroke Patients	
석사 학위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송정 일어일문학과 마츠자키 미에코 중어중문학과 김규태 이영천 사학과 조형근 김중수 한창도 허재형 철학과 강윤복 법학과 고관혁 행정학과 다니엘 코우틴 언론홍보학과 진명지 경영학과 원려나 손달림 관광경영학과 민다혜 왕징징 우마스탄 함사난디니 포홍비 회계학과 김보영 무역학과 웅습 서빙옥 농학과 김용근 고건희 배봉영 민동원 원예학과 스레이 테트볼릭 생명공학과 오승규 김대수 김정현	

초등영어교육전공 오수정 초등컴퓨터교육전공 김재형 마케팅관리전공 고승범 회계학전공 부응훈 김경민 김동식 관광경영학전공 강봉석 관광개발학전공 김정태 고경훈 신원철 송재철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박원철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한정화 법학과 박정용 정치외교학과 김기정 농업생명과학과 원예학전공 고부영 친환경농학과 이춘보 기계공학과 김정운 통신공학과 현규남 전자전기공학과 통신공학전공 오경남 식품공학과 강윤구 해양생물공학과 강문수 농업경제학과 전웅직 농업경제학과 농업경제학전공 김성대 풍력공학과 양달승 말산업학과 서승태 이용탁 기계에너지공학과 이동원 기계에너지시스템공학과 한재희 건설환경공학과 토목공학전공 안진홍 양세창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전공 오영삼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신강협 문민영 이미진 윤순영 고미연 임순정 한중과 오은숙 안영실 손려려 이지연 한일과 이지혜 이은조 안은별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노미경 이재항	의학과 현해경 문선영 최덕윤 조희성 조수아 조성문 정화영임수연 이주연 이선진 윤종혁 손종호 성재경박재현 박수경 박석진 문상호 문경호 김태선 김지훈 김안나 김성찬 김상희 김리나 김경희 짝은기 이민아 황누리 최유정 하유진 조원지 장익준 이시영 안하림 서재원 현형재 김소리나 법학과 홍재경 이도근 이미나 엄단비 박세진 채정식 이철웅 이연화 이승훈 이병 윤성구 윤석경 양영화 신민기 박성환 박성규 김현정 김철민 김준성 김우재 김영현 김보람 김민중 권우진 고경준 강병수 강나루 이동준 문현식 김정은 김봉조 김광현 강대웅 현지훈 김성진 박정환 추장훈 최우형 최강수 이윤택 국어국문학과 김성민 고제완 김우성 원인혁 정재욱 유승선 이동석 이재상 문성탁 오연실 고윤희 강재연 고현숙 강주연 김현정 박해림 강미연 강미진 김경애 김다연 김미주 김보경 김연선 김주진 문재용 송양지 장혜진 정병욱 진주리 함솔이 현수미 박미애 심보경 양희숙 오은주 장유유 주신희 현승민 왕형혜 영어영문학과 부승훈 조지웅 고승기 이현진 한동훈 고은아 김제성 김푸름 박다혜 김이슬 성지연 홍창익 임수아 허진희 현아 김유정 정서희 김에스더 고초영 김이래 김예은 양현아 이지은 김현호 장예동 김초민 신승성 교효정 김민주 이은경 독일학과 김윤정 강귀남 김승현 이준협 김범진 최경주 김진솔 양원창 이은정 일어일문학과 고진석 하정우 한소영 김형미 임현제 강애선 문혜정 이경준 이영수 장소연 양수안 문서하 현혜원 양지수 김태은 이지혜 김미나 이수연 이혜령 이정연 강상은 권내은 김소연 양다혜 양지은 윤창렬 정희연 최은 한지혜 이성주 강나래 김현아 문병석 배서영 오현정 중어중문학과 김용준 김현철 김지웅 이태룡 고석진 김수연 문서현 문지현 현민희 이지현 강지호 구유진 김다정 강지은 김유나 허소영 김민서 최수연 이정희 박지수 홍은지 강상이 강수경 강지현 교효정 김다혜 박선영 신슬기 오지현 이주영 현지혜 양아영 사학과 현경호 강예지 임동환 고경여 김성욱 한성용 강성중 김승현 고보익 김승태 양유석 양성희 김은찬 김지혜 김승애 강지은 교효정 권세중 김세영 송유은 진영민 최솔비 한정희 김유숙 사회학과 강형주 김우주 김봉관 김봉범 김위례 노현민 현순명 현지연 오승민 강윤호 고정현 김동환 김민경 류준영 백정근 임성민 진희중 최옥지 강보연 고경연 강지선 김다래 김미경 김지희 김태완 부정아 오지혜 위기는 이영남 송은비 고주희 김나래 철학과 이승석 장준혁 현동림 이현진 정종금 서수교 장영지 김민희 김준찬 김지형 엄하나 이태림 법학부(야) 최승연 법학부 법전공 고정용 강성흠 김지성 김찬용 김태림 문경환 문종현 문지호 안인석 장태영 김유범 강가람 강승원 김승택 김유철 김황수 이진명 지동욱 최성관 고봉진 김문찬 김지환 김현민 임현승 장영애
---	---

학위취득을 축하합니다

법학부 국제법무전공 김한현 박지훈	경영학과 (아) 이광민 조지영 박성대 송미향 이은주 정유선 최경진 이태철 장민석	해양의생명과학부 수산생명과학전공 강육남 고진욱 송민규 고지용 김윤택 김태수 오준영 정솔빈 한지미 이성훈 조영관 김유정 남궁진 박현경 백은란 송혜선 양은주 양정윤 양지수 양혜원 오슬기 조은영 최지는 김성림 현성일 현운선	생활환경복지학부 주거·가족복지전공 강균석 김정은 강은수 김소여 강혜원 박현애 송유미 안소연 양수영 오연지 이혜민 조혜민 현대자 박수연	이수현 이하림 임셋별 전수경
정치외교학과 김용희 박은현 최민화	회계학과 (아) 박금녀	해양산업경찰학과 김시원 김근형 강경홍 김경훈 김민규 김용수 박성호 박태성 성승하 이주형 이현석 홍승보 강경수 강경운 강동혁 강동건 김민우 김성택 김용진 부상중 송완준 송지훈 신정민 오지영 이승조 이한주 전한민 조진수 조태용 홍기석 홍수민 박찬미 강수빈 강해나 성미정 조소라 최은진 최준섭 신경일 고은	의류학과 강진영 김재용 문경필 서정기 양서희 고유리 차소영 김유리 양은정 최선미 강주영 황미가 최민영 고수선 김이레 박빛나 신승희 윤희연 이다현 임연혁 홍지혜 문지선	초등교육과 초등수학교육전공 강수운 강민희 김가한 김민서 박호경 백선영 손환주 이경민 이경아 이정명 한이슬
행정학과 홍성배 김석은 김종오 송두영 강병수 김승찬 김유정 이영림 이준협 한경준 한남경 고준호 강경호 고지영 김윤찬 김은숙 신현준 홍석모 박승환 이연실 문경혜 강문주 강민주 강유나 권민지 김민규 김소은 김은아 김지원 김태형 김해정 문민경 변광수 이가현 황은혜 부민경 홍정림 강예지 박민경 한승희 조아라 김수연 윤지현 강유영 백난아 부창현 양지혜 양희정 오수현 조인순 현진옥 고동윤 김은비 이상준	관광경영학과 (아) 손이권 김수인 이호현 김진수 이승윤 김혜진 전소희 한승이 김진선 윤주영 김소희	사범대학	체육과학전공 김강범 양경옥 김중현 이상연 이준희 채상협 현지수 고수연 김창수 박성준 배정미 손광운 송지애 안은정 오유진 이나은 이희태 차지혜 황무지개 김봉준 김완규 안성훈	초등교육과 초등사회교육전공 고동완 고아라 공도에 김성훈 김희민 모주현 박지영 이아남 이현 한유미
정치외교학과 김현수 이경준 신동걸 김선홍 김형준 윤성덕 강승균 김병구 강용호 고창빈 박건희 한유석 장부활 고상희 설교빈 김도연 고은아 고경민 이지인 홍선주 강서라 강수진 김미주	영어교육과 송진서 이현하 심혜민 김호진 정정훈 김수진 김아름 김혜웅 이지연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김진주 강혜진 김민경 김혜림	체육학부 레저스포츠전공 김동수 현이조 김명규 김형철 윤도채 강상민 김언아 김잔디 김중우 김현희 박지혜 박희 부수환 이동호 조민수 조현호 채은미 홍자현 우애정 조영현 김남도	초등교육과 초등체육교육전공 김혜진 고진실 신영화 양은탁 이여름 차윤경 최자경
언론홍보학과 고정현 강선경 이동건 임홍식 홍창빈 박지연 임재수 장수환 현우정 홍석현 이태운 오미란 백나용 송윤경 박선형 김해리 함진실 홍혜경 고다희 고미라 포방방 장한울 강민희 고수영 오혜림 우한 양재영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고익준 임성하 한진호 양영훈 김수현 이은지 김규원 김수현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김민정 고지는 김혜진 도수지 이민정 최자애 홍지영 강민영	공과대학	초등교육과 초등음악교육전공 김지나 강민우 강혜은 고문현 김민경 박충찬 변순미 부유진 양재혁 이현석
행정학과 (아) 박철희 임철우 김예균 박진환 조근희 오지현 하윤미 김상범	윤리교육과 장은진 고원상 현희재 문정환 김재유 방주미 이미리내 장혜은 현나래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김민정 고지는 김혜진 도수지 이민정 최자애 홍지영 강민영	식품생명공학과 이기쁨 김재원 이동혁 이현수 강기훈 강동휘 박재완 오치화 이민규 고은정 허민용 안소영 조은별 김지현 강유리 고미옥 김성은 김지나 김효진 박민정 양진정 오은영 장정원 조화영 현수미 현윤희 홍승미	초등교육과 초등미술교육전공 박현경 이상희 강동호 강지원 김다영 김하나 오수연 윤은진 이은진 이효연 최소형 현택근 고이레나
경영학과 박서영 현경민 이창기 김형철 강봉진 김석춘 김성우 박재영 부지환 오승민 조희재 홍승완 부은총 고영민 전용래 고경수 김태현 김아연 김주연 변진희 윤일광 이경환 이예솔 강은록 고재영 고은비 김이슬 한나영 문소영 현경아 조혜원 강병용 이지민 장인영 고창원 윤희성 허염 양수연 장가홍 장유	수학교육과 김경범 김태현 오석보 윤지현 김미선 김예진 김주희 송윤실 신은경 오현정	미술학부 작곡전공 양민정 정은선	통신공학과 이동선 한승우 조호 좌보람 김봉현 노정웅 이주홍 김용선 김도현 김문철 김민석 김수철 문석현 이병현 홍동욱 권철호 김명근 김현수 박지용 현보현 허태근	초등교육과 초등영어교육전공 김진옥 김유하 강승효 고경림 고보라 고은아 김경란 김선희 문지영 신영재 양지향 오유선 최유리 허영운
관광경영학과 박민준 양현규 오승언 오충은 이광수 강용훈 강혜정 김종현 전진왕 박형준 김태룡 박실 장성진 최홍열 홍영국 양석찬 김건 선우설자 김원호 박정혜 배하영 신덕규 김유나 최혜경 김가는 문정아 김지영 김나영 박강미 정가현 이주연 안소영 오혜진 최보배 장수연 홍승용 강민정 고아람 김보라 박현정 배종훈 이은지 정석원 최영숙 현새름 우효근 전사사 마운 정준주 주명수 강언화 고경태 서길민 여조평 완아란 왕창림 주다다 진형 채지영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전공 김준형 주상진 강진광 변화일 이선희 임단비 김민경 양지원 이지현	음악학부 성악전공 박다연 이철우 이남주 조은수 강수진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과 김지석 양민음 홍성준 강민철 고동현 김기웅 김보연 오상민 오정진 윤대환 최승우 고기범 신원배 오웅택 임효준 강윤석 부광필 송은지 장일영 차용빈	초등교육과 초등컴퓨터교육전공 박순우 윤현수 부창현 김성진 김유나 문정민 서희선 양희중 오혜원 장재혁 한호남
경영학과 박서영 현경민 이창기 김형철 강봉진 김석춘 김성우 박재영 부지환 오승민 조희재 홍승완 부은총 고영민 전용래 고경수 김태현 김아연 김주연 변진희 윤일광 이경환 이예솔 강은록 고재영 고은비 김이슬 한나영 문소영 현경아 조혜원 강병용 이지민 장인영 고창원 윤희성 허염 양수연 장가홍 장유	과학교육과 생물교육전공 김경환 양지호 주상민 조혁찬 정리나 강혜인 김지애 박소진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양윤설 강윤정 김소영 김슬기 부혜인 신은비 이로서 이지연 강미정 김민정 홍진희	기계시스템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현영빈 김광환 김동건 김현범 정인재 김무준 김민철 김석록 김수완 박진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진연주 박주애 김민경 백진이 한송이 허민영 홍한별 임성찬
회계학과 고득호 고봉찬 김민정 김정범 박경훈 이지훈 이훈성 이승훈 고경목 송원범 이수찬 정은찬 강용성 양재영 윤지영 이동윤 황해든마루 고경미 고정은 김경아 김지연 박근양 양길백 이가는 홍석재 강미래 진은정 정현선 고소영 고은원 김보경 안승혜 오은실 윤서린 이정민 이주연 고희경 이동영 김보민 김민기	컴퓨터교육과 이지훈 강봉균 김용석 김민건 김효상	미술학부 조소전공 강윤준 김정은	통신공학과 이동선 한승우 조호 좌보람 김봉현 노정웅 이주홍 김용선 김도현 김문철 김민석 김수철 문석현 이병현 홍동욱 권철호 김명근 김현수 박지용 현보현 허태근	초등교육과 초등영어교육전공 김진옥 김유하 강승효 고경림 고보라 고은아 김경란 김선희 문지영 신영재 양지향 오유선 최유리 허영운
경제학과 김동환 김종업 홍창범 강성후 고한기 김기남 송경목 이정엽 박종현 김시내 양수영 고지혜 임현주 현지나 고영민	생명자원과과학대학	미술학부 조소전공 강윤준 김정은	자연과학대학	수의학대학
관광개발학과 박석필 김경환 김철연 박재호 김대기 신정규 장성실 최윤휴 이상철 김민경 이진아 변유경 원환수 김지연 남예리 문소정 양하늘 윤선혜 주환 이원 무가가 황찬	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이광를 송상현 오민창 전승범 강민성 고대훈 고동기 고민의 고봉재 고봉준 김기완 김태옥 박재신 박형주 소성민 김현진 강지혜 류병호 송희 이희선 최석호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김다연 이철우 이남주 조은수 강수진	에너지공학과 김우중 원우연 양재준 김승현 오민규 오정민 이영규 임영빈 최동재 박혜인 윤성신 이상은	수의학과 (본) 오현영 이종욱 최슬기 오성규 홍태양 김미경 이나형 김명주 황윤주 김민진 김수현 김정엽 김정환 남호경 문미래 박성준 박정훈 박창남 박현성 배범주 서덕진 송호준 안수빈 우수환 이상욱 이예지 이용재 이태옥 임설화 장소영 장진호 조진희 홍광택 광정미 김설아 박규태 송성혜 송애라 안재완 유승수 유진영 이규인 이장미 이혜리 정준영
경영정보학과 유상욱 조성호 강영균 김명수 박경택 최승호 함현길 이동현 강현희 여상은 강민이 김주희 박미 유봉비 양세대 오혁진 조소훈	생물산업학부 동물자원과과학과 이병훈 고영신 김현석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심수정 강태영 백준수 이태주 황찬양 김성찬 김경준 김남훈 오혜정 강나리 강선영 강하나 고광은 김미애 김지현 박은빈 부소영 서리라 양인혜 송나라	토목환경과학부 토목환경전공과 김준영 김홍규 허성훈	수의학과 (분) 오현영 이종욱 최슬기 오성규 홍태양 김미경 이나형 김명주 황윤주 김민진 김수현 김정엽 김정환 남호경 문미래 박성준 박정훈 박창남 박현성 배범주 서덕진 송호준 안수빈 우수환 이상욱 이예지 이용재 이태옥 임설화 장소영 장진호 조진희 홍광택 광정미 김설아 박규태 송성혜 송애라 안재완 유승수 유진영 이규인 이장미 이혜리 정준영
경영학과 김동환 김종업 홍창범 강성후 고한기 김기남 송경목 이정엽 박종현 김시내 양수영 고지혜 임현주 현지나 고영민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전공 김지완 이혁신 문정훈 변재성 양용석 송정민 고유리 강우준 이명주 허민권 정우석 김태일 김태현 오지훈 조현정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양윤설 강윤정 김소영 김슬기 부혜인 신은비 이로서 이지연 강미정 김민정 홍진희	식품영양학과 문세련 이견우 송지현 오지현 정은영 김노경 김민희 김주미 김유나 강문영 강미정 강보원 강새임 강소원 강지연 강현이 강혜경 고경원 고민지 김나희 김선미 김윤지 김하경 노혜미 이다경 이지혜 임민혜 정유아 주은정 한소영 박선미 최지혜 표중국	수의학과 (분) 오현영 이종욱 최슬기 오성규 홍태양 김미경 이나형 김명주 황윤주 김민진 김수현 김정엽 김정환 남호경 문미래 박성준 박정훈 박창남 박현성 배범주 서덕진 송호준 안수빈 우수환 이상욱 이예지 이용재 이태옥 임설화 장소영 장진호 조진희 홍광택 광정미 김설아 박규태 송성혜 송애라 안재완 유승수 유진영 이규인 이장미 이혜리 정준영
관광개발학과 박석필 김경환 김철연 박재호 김대기 신정규 장성실 최윤휴 이상철 김민경 이진아 변유경 원환수 김지연 남예리 문소정 양하늘 윤선혜 주환 이원 무가가 황찬	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공학과 조상현 강경훈 양현준 현명훈 고기범 김종성 고은희 이강석 현주현 현호봉 오민주 이혜진 고경아 김지원 이정민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심수정 강태영 백준수 이태주 황찬양 김성찬 김경준 김남훈 오혜정 강나리 강선영 강하나 고광은 김미애 김지현 박은빈 부소영 서리라 양인혜 송나라	가정관리학과 이지연	교육대학
경영정보학과 유상욱 조성호 강영균 김명수 박경택 최승호 함현길 이동현 강현희 여상은 강민이 김주희 박미 유봉비 양세대 오혁진 조소훈	산업응용경제학과 김충현 강용기 강성욱 고용주 송민철 신상우 김나현 강한비 양지현 은종호 이상찬 이슬비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심수정 강태영 백준수 이태주 황찬양 김성찬 김경준 김남훈 오혜정 강나리 강선영 강하나 고광은 김미애 김지현 박은빈 부소영 서리라 양인혜 송나라	생물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박행철 강준철 노현진 유정준 박혜령 이민정 염상훈 황훈	수의학과 (분) 오현영 이종욱 최슬기 오성규 홍태양 김미경 이나형 김명주 황윤주 김민진 김수현 김정엽 김정환 남호경 문미래 박성준 박정훈 박창남 박현성 배범주 서덕진 송호준 안수빈 우수환 이상욱 이예지 이용재 이태옥 임설화 장소영 장진호 조진희 홍광택 광정미 김설아 박규태 송성혜 송애라 안재완 유승수 유진영 이규인 이장미 이혜리 정준영
경영정보학과 유상욱 조성호 강영균 김명수 박경택 최승호 함현길 이동현 강현희 여상은 강민이 김주희 박미 유봉비 양세대 오혁진 조소훈	해양의생명과학부 해양생명과학전공 이종경 김석호 김민기 김효진 오상형 강승균 신성규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심수정 강태영 백준수 이태주 황찬양 김성찬 김경준 김남훈 오혜정 강나리 강선영 강하나 고광은 김미애 김지현 박은빈 부소영 서리라 양인혜 송나라	생물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신지란 김경향 양동식 고보람 김동준 김정만 박민하 손수미 이수훈 좌익진 이정선 김대경 윤람도 홍민지	문의 = 학사과 064) 754-2020-5

다학제간 융합으로 관광 소프트웨어산업 핵심 인재로 양성



지난달 27일 경상대학 2호관에서 OIC복수전공과정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경상대학 2호관 경영대학원 공개강좌 회의실에서 2차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특성화 사업단 현장 제주대 OIC(Open Information Convergence)사업단

제주대학교 OIC 사업단(단장 김근형 경영정보학과 교수, 이하 사업단)은 문과생과 이과생이 지닌 특성을 융합하여 새로운 인재를 만들고자 한다. 이 사업은 제주대가 지난해 11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개방형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정'의 선도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행됐다. 사업단은 4개 학과(경영정보학과, 관광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산통계학과)의 협력을 통해 완성시킨 교육과정을 '관광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으로 만들었다.

최근 IT분야는 스마트 기기와 정보통신 서비스의 확산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쓰임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또한 타 분야와의 융합을 증점으로 진행되는 창조산업의 수요로 인해 새로운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주도 역시 시대의 흐름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스마트 관광시대의 개별관광객 증가추세에 따라 관광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나 기존 인재는 혁신을 이룰 수 없었다. 때문에 관광 비즈니스 마인드와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겸비한 융·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창의형 인재가 요구됐다.

사업단은 재학생들에게 융합형 IT전문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IT를 타 산업이나 제품 등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일자리와 경제규모를 늘리자는 얘기다. 사업단은 제주 관광사업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하여 제주의 관광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창조경제의 핵심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한 가지의 기술을 보유한 인재보다는 두 가지 기술 소유자를, 더 나아가 'α'를 갖춘 융합형

인재를 선호한다는 의미다.

김근형 단장은 “경제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선 전공분야에서 잠재력 역량을 축적함과 동시에 실무적인 감각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단의 교육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친 지식습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공학과 인문학 그리고 ICT 관련 내용을 융합해 하나의 큰 지식으로 만드는데 그 목표를 둔다”고 덧붙였다.

복수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겪는 고통은 본인이 생각한 전공수업과의 괴리감에서 온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생소한 교과목, 학과 적응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겹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교육과정의 이해도가 떨어져 수강에 곤란함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사업단은 인재를 육성함에 있어 한 가지 길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진로 선택에 있어 그 폭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에 걸맞게 사업단은 개개인의 특성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준비했다. 또한 인재를 선택함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이들의 잠재력을 높히 평가한다.

‘관광융합 소프트웨어 복수전공’의 교육과정은 △이노베이션 특강 △프로그래밍 기초 △소프트웨어 융합개론 △관광과 정보기술 등의 공통 이수과정으로 시작한다. 이후 ‘관광비즈니스’ 분야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융합’ 분야의 교과목을 적성에 맞게 수강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할 때 또한 세 가지의 커리큘럼에 맞춰 다양한 진로방향을 갖게 된다.

김근형 단장은 “OIC는 ‘Open Infor-

mation Convergence’의 약칭인데 여기서 ‘Open’은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다”라며 “우리 사업단 교수진들은 교과목 이수에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식 전문요리사가 양식에 도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듯 교육과정 또한 마찬가지다”며 “길 하나를 확보했다는 안심 대신 두 세 개의 길을 만들어 두자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단이 자랑하는 것은 교육과정뿐이 아니다. 기업체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C&D Project, 각종 기업 인턴쉽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취업특강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또한 학생들이 보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타 복수전공과 달리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취업지원 시스템과 1:1 멘토링 제도, 전공동아리 개설 및 경진대회 참가 기회 등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관광융합소프트웨어 전공’이 산학협력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넉넉한 지원금을 보장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은진은 OIC 사업단 전담교수는 “단순히 교육과정이 좋다고 해서 인재를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라며 “사업단은 3종의 장학시스템(학사지원비, 자격증 취득 및 영어성적 지원비, 경진대회 입상에 따른 지원비)은 물론 기업체와의 연결을 통한 취업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단은 지난달 27일 교내 학생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이어 3월 3일 오후 3시 경상대학 2호관 강의실에서 두 번째 설명회를 갖는다. 복수전공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OIC 사업단을 방문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합격 후에 OIC 연계전공 과목들을 신청할 수 있다.

강수빈 기자

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과생이 지닌 자유로운 기획력과 이과생의 소프트웨어적 실무 능력이 더해진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OIC사업단은 문과생만이 가질 수 있는 A라는 잠재력과 이과생의 B라는 잠재력을 융합하여 새로운 α(알파)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내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국책 사업들을 유지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대학 본부나 교수들이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유지한 사업들은 결국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실력 향상은 물론, 대학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인터뷰 김근형 OIC사업단장

“전공 역량 축적과 실무능력 향상에 역점”

▶취임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큰 게 사실이다. 경영정보학과 소속 교수로서 평소 IT융합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번 사업을 통해 평소 생각해왔던 융합교육 철학을 추진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더 크다. 사업단 운영을 통해 제주대학교의 인재를, 더 나아가 제주도를 위한 인재양성에 힘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경쟁력 있는 인재로 육성할 방안은

“경제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선 전공분야에서 잠재적 역량을 축적함과 동시에 실무적인 감각을 쌓아야 한다. 덧붙여 논리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역량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사업단의 목표이다. 예를 들자면 사업단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히게 한다. 프로그램 하나의 명령조차도 논리력 없이는 만들기 힘들다. 프로그래밍 기술은 곧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을 쌓는 방법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일을 할 때 반대의 성향을 지닌 두 사람은 서로의 단점

아라 초대석 <1>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올해는 제주4·3이 발발한지 66년이 되는 해다. 4·3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도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오랜 숙원이었던 4·3추념일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4·3평화재단은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앞서 이사회 만장일치를 통해 이문교(76)이사장을 선출, 지난 1월 7일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문교 이사장은 1960년 5월 제주대학교 학생으로서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구성, 최초로 4·3진상규명의 횃불을 들었던 인물이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4·3진상규명운동의 초석을 다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학생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사회기관단체인으로서 쉬지 않고 걸어온 4·3해결의 발자취와 4·3평화재단 이사장으로서의 큰 포부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이문교 이사장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1960년 3·15부정선거 이후 전국 곳곳에서 학생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제주 사회에서도 학생들의 움직임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경찰감시가 강화됐다.

당시 2학년이던 이 이사장은 결의문, 성명서 낭독과 함께 ‘자유당정권 물러나라’, ‘3·15부정선거 원용 차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는 4월 26일부터 시작돼 29일까지 사흘간 계속됐지만 시위가 끝난 후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곧바로 학생연합선무대를 결성했다. 데모 후의 피해수습, 경찰과 행정의 기능 회복 등에 주력하여 치안유지에 협조해줄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질서 회복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4·3진상규명운동은 4·19혁명에 참여했던 학생운동의 연장선에 있었다. 1960년 제주대학 법학과 2학년 강의실에서 4·3사건 양민학살 진상규명 활동문제가 논의되고 총 7명의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가 결성됐다.

이 이사장은 “4·19 이후 국회의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거창, 산청, 함평 등지의 양민 집단학살 사건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들은 인

권 유린과 학살 사건의 폭로 기사들을 보면서 제주 4·3사건으로 무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을 생각하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제주사회에는 ‘4·3사건=공산폭동사건’이라는 등식의 레드콤플렉스가 지배하고 있었고, 4·3피해자들은 마치 공산동조자 또는 범법자라는 강요된 인식 아래 묻혀 있었다. 이 이사장은 “어렵게 진행됐던 ‘4·3진상규명동지회’의 활동은 5·16쿠데타 이후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재촉받 된 4·3진상규명운동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정부의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발표로 이어진 4·3사건 진상규명 활동에서 최초의 시도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제주지역에서도 모든 학생운동이 금지됐다. 이 이사장 역시 5월 17일 저녁 포고령 위반으로 계엄군에 연행돼 긴급 구속됐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때로는 심야에 구타를 당하며 경찰 조사를 마치고 수감 돼 있다가 11월 13일 기소유예 처분으로 석방되어 귀향했다.

석방된 후에는 경찰의 요시찰 대상자가 되어 곳곳에서 감시당했고 육군에 입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방첩대 요원의 면담에 응해야 했다. 대학 졸업 후, 제주대학 병설교육과에 채용될 예정이었으나 신원조회 결과 신원특이자로 분류되어 채용되지 못했고, 이를 계기로 공직에 대한 꿈을 접고 언론계로



지난달 7일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문교 이사장이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참배를 하고 있다.

진출하게 됐다.

그 이후 이 이사장은 방송을 통한 4·3교발에 힘을 쓰게 된다. 가시밭길이었던 언론 민주화는 1989년을 정점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고 4·3의 진상규명운동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제주 MBC 보도국장 재직 때인 1989년 4월 2일 이 이사장이 기획한 제주 MBC 보도특집 ‘현대사의 큰 상처-제주 4·3사건’이 전파를 타고 나가게 됐다. 이 이사장은 “당시 우리나라 언론사상 첫 4·3특집보도가 공영방송의 전파를 탔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후 제주MBC에서 해마다 4·3을 전후로 보도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라며 뿌듯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제주발전연구원장 재직 당시인

권하고 싶은 책

김만덕·양제해의 역사 충격적으로 담아내

간혹, 역사는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곤 한다. 특히 전 시대를 살던 인물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시대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제주의 여인 김만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는 인물이 될 수 있음에 틀림이 없다.

유년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조선 제일의 거상으로 성장하였고, 시대적 모순을 극복하였으며 나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으로서 하나의 신화화된 인물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힘입어 최근까지 김만덕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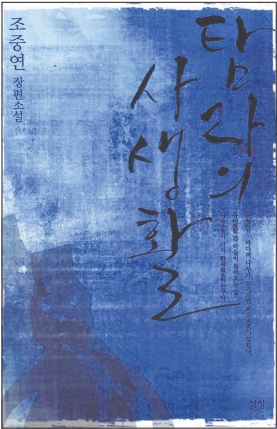
그러나 김만덕 열풍은 최근 들어 다소 침체되어간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김만덕을 소재로 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보이는 정형화된 패턴 때문이라 진단하곤 하는데, 이 시대 속 김만덕을 구성하는 신화가 점차 확고하게 굳어진 결과 이제 웬만한 독자들은 김만덕이란 단어만 들어도 그 작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가능해진 것이다.

이때 개인적으로 조종연의 『탐라의 사생활』을 접했을 때,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다른 김만덕 작품들과 달리 처음부터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작품 전반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와 현재를 오가며 작품 속 작중인물들이 제시하는 진실의 조각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조심스레 다뤄야 했다. 역사와 현재 사이에 벌어진 틈을 작가는 상상력을 통해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노력했다.

작가는 소설의 시작에 앞서 “이 글은 소설이며, 소설로만 읽어야 한다.”고 독자에게 당부한다. 나는 이 소설을 읽기 전, 누구든 그 당부를 무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소설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역사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구성된 플롯이 역사적 진실로 밀려져버린 순간 우리는 순간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

이쯤이면 소설의 시작 전, 일러두기의 작가의 말은 당부가 아닌 작가 스스로의 자신감이 아닐까.

소설은 한라산자락에 한 사내가



조종연 지음
『탐라의 사생활』
도서출판 삼창 펴냄

살해당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렇민이란 인물은 그 사내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파헤쳐간다. 그리고 이 소설은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김만덕의 이야기다. 이 소설에서 그려내는 김만덕은 상찬계의 결성, 조선선과의 인연, 제주도민 구휼, 양제해 사건의 전모 등 기존 김만덕 작품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형민과 김만덕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 인물 모두 특정한 진실을 밝히려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형민은 한 사내의 죽음을, 김만덕은 상찬계의 존재를 밝혀내려 하며 그들은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과 대립한다.

소설의 치밀한 구성에 독자는 분명 역사적 사실이라는 활시위를 문학이라는 과녁에 당기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문학이 그 활시위의 과녁이 됨은 부당한 일이다. 왜냐면 문학, 특히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의 경우 작가의 상상력 개입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필연적으로 허구의 허용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허구가 역사적인 사실의 입장에서 분명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허구를 허구가 아닌 것처럼 위장시킨 조종연 작가의 이야기꾼적 재능은 분명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독자는 『탐라의 사생활』을 통해 이 소설이 가진 탄탄한 구성, 흡입력, 그리고 진실을 위장한 허구를 읽는 재미에 가까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도 좋을 것이라 추천해 본다.

양원 혁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화해와 상생의 4·3 평화정신을 훌륭한 유산으로 전승시킬 것”

계획을 연구했던 그가 이제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이 됐다. 이사장직 승낙 요청을 받으며 고민했으나 다만 한 가지, 4·3의 참혹한 비극을 통해 도민들이 이뤄내고 있는 ‘평화정신’을 세기의 기록으로, 새로운 역사로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승낙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 이사장은 “4·3가족들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 속에 깃들여 있는 평화정신을 깊이 선양하고 싶습니다. 형제끼리도 등을 돌릴 정도로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슬기롭게 풀어나고 밝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제주민들의 평화정신과 슬기를 훌륭한 유산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 4·3사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이 화해정신으로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는 평화의 정신을 깊이 선양하고, 세계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데 노력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의 평화정신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4·3에 관한 한 작은 일을 크게 확대하지 않고 큰일을 작게 감추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4·3위령재단은 진실만을 말하는 고해성사의 제단이 돼야 하며 평화정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어둠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사장은 4·3문제 해결에 관련해 모든 지도자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믿음을 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박소연 기자

교수시론



오창윤
문화조형디자인전공 교수

얼마 전 한 서점에 들렀다가 소설 ‘응답하라 1994’란 권권의 책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최근 우리나라 문화계는 90년대 복고적 감성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복고적 감성은 사회 트렌드(Trend) 변화에까지 영향을 주며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 트렌드(Trend) 변화는 2000년대 후반 웰빙(well-being)에서 힐링(healing), 다시 행복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2년 힐링신드롬을 시작으로 2013년은 행복이 트렌드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다양한 단어들이 그를 포장한다. 그 중심에 복고적 감성이 있다.

현재에 주목하라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을 시작으로 케이블 채널 tvN ‘응답하라 1997’로 이어지고 이후 ‘응답하라 1994’로 만개하며 9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문화컨텐츠들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누군가 내게 2013년을 얘기해보라면 난 단연 ‘응답하라 1994’를 얘기할 것이다. 40초입에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대를 넘어 모든 세대가 공감할 것이다. 90년대 복고적 감성에 공요!

재밌는 것은 내가 건축학개론이란 영화를 볼 때처럼 이 드라마를 스토리로 보지 않고 배경에 나오는 다양한 사물을 통해 보고자 했고 그것들로 과거를 추억한 점이다. 삐삐, 씨티폰,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 농구대잔치, 콜라텍, 락카페, 삼풍 백화점 붕괴와 같은 사회상황 등... 나의 대학 내기 시절을 담고 있는 ‘응답하라 1994’의 흥행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사회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 시절을 보면 30,40대들이 현재의 소비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 시대를 반영한 컨텐츠가 사업 아이템으로 이용되어지고 있고 마케팅 전략에까지 복고적 감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TV 광고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

광고는 시대를 반영한다. 몇 일전 우연히 접한 K9광고! 중국 장가계를 배경으로 한 이 광고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한 대의 자동차가 질주하고

그 사이를 카피문구가 채운다. “에비고사 본고사로 이어졌던 입시의 문턱... 시대의 언덕을 넘어 세상을 이끌어온 당신! 당신께 오마주 합니다”로 광고는 끝난다. 보편적인 감성을 자극하게 만드는 광고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최첨단 시대인 요즘 왜 90년대 복고적 감성을 얘기하는 것일까?

이는 90년대가 바로 가장 많은 세대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세대공감 접점이라는 점이다. 90년대는 경제적 풍요로움이 넘치는 시기였고 대중문화의 핵심으로 자리한 아이돌 문화가 시작된 시기였다. 10, 20대에게는 새로움을 30, 40대에게는 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원형이 만들어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문화코드를 90년대 복고적 감성이 채우고 있고 다양한 관련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화사물과 현상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문화현상에는 미래를 주도할 중요한 컨텐츠가 있고 우리 미래가 그 속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SNS, 구글 글래스, k-pop 등으로 대표되는 요즘! 난 요즘 학생들이 가벼운 문화경험 보다 목직한 문화경험을 하기를 갈망한다.

디자인학과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최대의

화두는 새로움이다. 새로움은 사소한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사소한 경험적 기억이 새로움을 만들 수도 있고 인생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

경험적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열쇠이다. 또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기도 하다. 각각의 존재방식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스친 수많은 추억 속 경험적 기억을 주목해 보자!

독일의 철학자 가다머(Hans-Georg Gadamer)는 “의미는 종착지에서 완성되고 열록은 보고자 하는 자에게만 보인다고 했다.” 일상에 사소한 열록, 우리문화 속 사소한 열록, 각자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열록을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해 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우리 인생을 바꿀 열록이 지나가고 있지 모른다.

2014 초입에 오늘! 2013년 복고적 감성을 얘기하고 그 곳에서 미래에 대한 작은 견해를 풀어보았다. 이는 새로운 문화 창출과 인생의 소중한 컨텐츠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현재에 주목하라!

훗날 우리는 ‘응답하라 2014’를 외치며 현재의 사물을 얘기하고 추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얘기한 복고적 감성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될 그날을 상상해 본다.

독자기고

스펙이 아닌 꿈을 좇아라



이준혁
윤리교육과2

오늘도 수업이 많은 발걸음이 도서관으로 향한다. 수 많은 발걸음들은 모여서 큰 흐름을 주도하고, 주위를 서성이던 다른 발걸음들을 다시 도서관으로 인도한다. 요즘 시대에 변변한 ‘스펙’ 하나 없는 젊은이가 어디 있을까? 다들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어시험 고득점, 혹은 이름난 자격증 따기에 혈안이 돼 있다. 대기업 입사라는 ‘꿈’ 아닌 꿈’을 좇고 있다. 그들의 문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다들 같은 길을 각기 다른 속도로 걷고 있지만, 그들은 점차 고학력이라는 그들만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주위에 핀 다른 꽃들이나, 혹은 아름다운 골목길을 놓치고 있다. 그들이 이토록 현실적인 것에 매달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

사실 모든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이 손에 꼽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요즘 같은 시대에 정년이 보장이 되며 동시에 연금이라는 값진 노후 혜택도 주어진다. 잡시의 고생이 편안한 몇 십 년을 제공한다는 이름으로 그 좁은 길을 수 천의, 수 만의 젊은이들이 몸이 끼여가며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고소득, 고연봉이라

는 순간의 쾌락이 소중한 젊음의 시간을 버려가면서까지 갖고 싶은 1순위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점점 올라가는 동료들의 스펙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열심히, 저 사람 보다는 앞서야 하는 생각에 피를 흘리는 고통을 감수하고 달린다. 하지만 길은 좁았고, 나보다 수없이 높은 단계에 위치한 어떤 ‘그들’에 의해 절망을 느낀다. 인생이 펼쳐지는 기간은 분명 끊임 없는 배움의 연속일 것이다. 하지만 그 배움이라는 것이 기업의 입사를 위한 어떤 ‘공부’가 된다면 분명 배움은 그 본질을 상실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의 벽이, 현실의 벽이 높다고 한들 굴복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자신을 비난하고, 우물해하기 보다는 우리를 ‘사회적 동물’로 만든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노력도 없이 비난을 퍼붓고, 부의 재분배니, 불평등의 양산이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부정확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현실을 맞닿은 입장에서 자신의 미래와 꿈에 관한 고민들은 자칫 소홀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젊은이가 죽기 직전엔 못 먹어본 음식보다 도전해보지 못한 꿈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인생 속에서 누구나 개척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한다.

독자기고

취지 역행하는 국가장학금 손질을



윤이나
생활환경복지학부2

얼마 전, 뉴스를 보다 충격적인 기사를 봤다.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이 현재 장학금 수혜 대학 288곳 중 122곳을 점검한 결과 57%가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본래 한 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사업은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사업은 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 사업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 첫 번째가 장학금이 수혜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임용한 대상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사립대학에서는 지급된 국가장학금 12억원 중 6억5천만원을 교직원 월급으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또한 인천의 한 사립대학에서는 성적이 미달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학생 109명에게 8천400만원을 지급하려다 적발됐다.

꼭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할 국가장학금이 수혜 자격 미달 학생들에게 심지어 학생이 아닌 교직원들에게 쓰인다는 것은 수혜 학생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장학금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는 것이며 사업의 처리에 있어 허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장학금이 본래의 취지를 되찾기 위해선 각 대학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급한 후에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장학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학생은 등록금 감면이 되지 않아 빚을 내서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도 등록금 감면이 되지 않은 학생이 2013년 2학기에만 8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국가장학금 지급일이 지연될 경우, 부득이하게 학생들은 등록금으로 쓸 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록금 납부 기간 막바지에 부담을 더 없어주는 꼴이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각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 과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은 한 줄기 빛과도 같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몇 백이 넘어가는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등록금은 부담이 된다. 그렇기에 국가장학금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재단과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하고 차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문칼럼

커다란 파도가
훌륭한 어부 만들어



권대정
법학과 87학번
복사TV 제주방송
대표이사

말피해가 밝았다. 말은 열심히 뛰며 갈기를 휘날리는 열정적인 이미지의 동물로 사람이 본 받을만한 점이 있기에 12간지에 속해 있을 것이다. 먼저 솔직한 이야기로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다. 아나운서 출신인지라 말을 잘하는 동문으로 비취지기보단 직설적이고 솔직한 선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물론 뒤 끝도 없다.

첫째, 약속을 잘 지켜라. 우리는 아침부터 잠이 들 때까지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지낸다. 작게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약속까지.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 드러난다. 심지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보인다. 본인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를 남이 신뢰 하겠는가. 본인은 뉴스와 방송을 수천 번 진행했지만 그 일을 나와의 약속이라 생각해서 절대 펑크 낸 적이 없다. 그런 약속들이 하나씩 모여 나를 작은 방송사의 사장으로 만든 것이다.

둘째, 전화를 잘 받아라. 나는 아직도 호도 폰을 사용한다. 돈이 없어도 아니요, 선물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전화를 보고 놀란다. 유령에 민감하고 첨단 기술을 쫓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서 전화는 구닥다리라고,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묻는다.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느냐. 구구절절 쏟아지는 대답은 비웃비웃하다. 연예인 기사를 읽거나 무의미한 채팅, 모바일 게임 등, 전화기는 사람의 전화를 돕는 도구이지 컴퓨터 게임기가 아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고작 게임이나 연예기사에 묶여 있어야 하는가. 조그마한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안쓰럽다. 주변에 경찰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 유치장에 오는 사람들은 전화 한번 받는 적이 없지만 게임은 그렇게 잘 한다.

셋째, 바로 해결하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은 사회로 나와도 그대로다. 사람은 서면 앓고 싶고, 앓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을 잔다. 하지만 반대로 해보라.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즉 일을 해결하지 않고 미루다보면 언젠간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당신을 맞이한다.

넷째, 말을 잘해라.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는 말은 옛말이 아니다. 지금도 통하는 말이다.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말인데 통통스럽게 전한다면 나쁘게 전달된다. 너무 살살거리며 주위를 의식하기보단 진정성을 갖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보자. 아마 생각보다 반응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 말고 부딪쳐라. 사람은 철저히 깨져 봤을 때 비로소 보인다. 난 안되니까 대중 살자고? 큰 파도가 훌륭한 어부를 만든다. 한번 파도에 진 바다인은 다시는 굴하지 않고 힘찬 팔뚝과 지혜로 무장한다. 후에 그때 그릴 걸하고 후회하다보면 여러분은 흰 수염이 무성한 노인이 됐을 것이다. 절절결 하며...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소속,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000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press@jejunu.ac.kr

라운은 ‘즐겁다’는 의미의 순 우리말입니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라운그룹은 제주의 기업입니다.
라운가족은 현지 법인화를 통해 지방세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라운 임직원 369명 중 97%인 358명이 제주출신입니다.
모기업인 라온건설도 제주현지 법인입니다.

연간 20억원에 이르는 라온골프클럽, 라온프라이빗타운
농·축·수산 식자재도대부분 제주산입니다.

라운그룹은 라온골프클럽과 라온목장, 더마파크, 라온프라이빗타운,
라운호텔&리조트, 라온투어, 라온명품관 등의 관광사업을 통해
제주 서부권을 국내 최대 체류형 휴양지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라운가족은 앞으로도 제주경제 활성화의 디딤돌로써,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RAON GOLF CLUB
라운골프클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18번지
TEL 064-795-1000 FAX 064-795-1001

RAON PRIVATETOWN
라운프라이빗타운

라운프라이빗타운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금능남로 127
TEL 064-795-8008 FAX 064-795-8051

The馬PARK
더마파크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월림리 산8번지
TEL 064-795-8080 FAX 064-795-8081

RAON名品館
라운명품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7
TEL 064-795-3200 FAX 064-795-3209

RAON TOUR
라운투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18번지
TEL 064-796-9651 FAX 064-796-9654

홍답하라 대학생활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기에...

“교육이란 ‘삶’을 스스로 깨달아 ‘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했다.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참교육하는 사도의 길 걸을 것

단지 선생님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설레는 맘을 안고 1학년 생활을 시작했다. 웅장한 공연을 하며 인생에 있어서 처음 춤을 접했다. 연습할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다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2학년이 됐을 때는 슬럼프가 왔다. 이때 가장 위로가 된 것은 익숙한 곳에서의 탈출이었다. 여름방학 동안 고향인 부산에 있었다. 이모네 집에 머무르면서 추억 속 장소를 돌아다녔다. 혼자서 거리를 걸으며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2학년을 올라가며 슬럼프에 빠진 친구들에게 조언을 주었다.

그리고 3학년, 수업실습을 나가 학생들 앞에서 내가 선생님이라고 불렸다. 모든 게 서툴고 낯설었지만 나의 길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고됐지만 보람도 있었다.

마지막 1년은 빠르게 지나갔다. 이때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작은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됐다. 친구들과 수다 떨고, 조그만 초콜릿하나 혼자 먹기 미안해서 나눠 먹고... 작은 행복이 지친 순간을 잊게 해줬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 힘들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내가 되는 데 밑거름이 됐다.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다. 학교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다라도 너희들이 겪는 것들이 내가 어떤 길을 걸어 가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돼 줄 것이다.

▲이정민

초등교육학전공 졸업
임용고시 합격

“공부하는 것도
즐거움의 한조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목표를
이뤄나가고 있다”

임경준 ▶

생물학과 졸업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 10편 발표

다양한 경험이 새로운 도전 가능케 해

나는 입학을 하고 첫 학기가 끝나자 바로 군입대를 했다. 복학을 하니 학교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전공도 흥미가 없어 2학년까지 학점 관리보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 도중에 몸을 다치게 됐는데 내 잘못으로 떠넘겨져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

그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결국 알바생일뿐’이란 생각이 들었다. ‘열공하자’란 다짐을 하고 이승현 교수님을 찾아뵈었다. 교수님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내 말만 듣고 실험실에서 일을 돕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다. 교수님, 대학원생 형들과 함께 어울리며 실험을 지켜보다 전공에 흥미가 생겼다. 책으로만 보던 내용들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전공 성적까지 크게 올랐다.

실험실에서 보조를 하다 ‘캡스톤디자인’에 참여를 한 적도 있다. 학과 선배들과 친해지게 됐는데, 특히 올해 팀장으로 참여한 캡스톤디자인에서 인기상을 받았다. LINC사업단 ‘신문익점 해외탐방대’로 5박 6일동안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다. 농장을 다니며 재료를 구하고 사업가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등 색다른 경험이었다.

졸업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후배들이 찾아와 전공 공부와 실험실 등 활동과 진로에 대해 많이 물어본다. 그럴 때마다 난 “그냥 해봐”라고만 말한다. 실패를 하더라도 일단 도전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지 혹은 틀린지 경험해야 알 수 있다.

‘일단 해봐’

실패를 두려워 말고
우선 도전하자
그래야 경험할 수 있다

◀오준영

수산생명과학전공 졸업
대학원 진학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학위수여식의 이미지는 보통
학사모와 검은 가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각’이 아닌 ‘행동’
자립심을 키우면서
그 속에서 재미를 찾자

새로운 분야 도전, 좋은 경험

대학에 다니며 하고 싶은 것을 다 도전했던 것 같다.

시작은 미미하고 초라했다. 그러나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다. 그렇게 세계테마기행으로 태국과 캄보디아로 봉사를 갔다. 봉사활동을 하며 앞으로 많은 봉사를 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실천 또한 했다.

졸업을 앞두고 후회는 없다. CC, 과대, 학생회, 동아리... 모든 학교생활을 섭렵했다. 4학년 때부터는 기자단을 하고 대외활동도 하며 경험을 쌓았다. 하고 싶은 것을 다 도전해 봤기에 후회가 남지 않은 것 같다.

후배들은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찾았으면 좋

겠다. 우리는 신발을 살 때 신어보고 산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고민하다 4학년이 돼 버린다. 4학년이 돼도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친구는 많이 없다.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찾듯이 탐색을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할 경우

에는 그 때는 일이 일이 아닌, 놀이가 된다. 또한 제주도의 지역적 한계는 없다. 스스로 지역적 한계를 만드는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것과 한계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려움은 누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마음가짐인데 이것이 한계랑 똑같다. 스스로 울타리를 지어버리고 한계를 두지 말자.

▲김종오

행정학과 졸업
학생강연가

2013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www.jpdc.co.kr

Pure Enjoyment!

1950m 신비로운 한라산의 숨결이 느껴지는 깊은 맛
지금 느껴보세요!

제주삼다수와 제주산 맥주보리가 어우러진
전통 프리미엄 맥주 제스피

삼다수 hallasue

Jespi

삼다수감굴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Jeju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제스피 영업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길 44번지 1층 (구 신제주종합시장)
문의 : 064) 780-3792, 713-7744

세계7대자연경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제주